

SOCIETY

광주 시민단체 '삼보일배'... "尹 대통령 파면 촉구"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고흥수협 여직원 10억 횡령 광양서 체포...5만원권 훔쳐

전남 고흥수협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예탁금 등 회삿돈 10억여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고흥수협 직원인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초부터 전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던 예탁금 등 10억3000여만원(수협 추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입이 끝난 뒤에는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수천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현금 지폐를 담은 수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부모가 사는 광양시 모처에서 검거됐다.

전날 A씨가 출근한 뒤 잠적하자 수상한 김새를 눈치 챈 직원들이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수협에서 8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1100만 원가량을 회수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윤석열 측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구 5·18민주광장~금남로공원 518m 구간 왕복 광주비상행동·시민 150명 참여...절박한 심정 호소

1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광주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26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삼보일배에는 40명의 참가자와 100여명이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공원까지 약 518m 구간을 왕복하며 절박한 심정을 담아 절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즉각 판결을",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 판결을", "내란세력 척결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에 앞서 오병운 5·18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의 파

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18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치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도 지나가던 발길을 멈추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민군(17)은 "역사 시간에 배웠던 5·18을 실제로 보는 것 같아 슬프다"며 "제2의 5·18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방문한 뒤 삼보일배를 지켜본 한 시민은 "눈물이 터질 것 같다. 이 순간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깊은 탄식을 내뿜기도 했다. 삼보일배는 오전 11시40분 마무리됐

다. 이날 삼보일배의 선두에 선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목격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32일째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담아 행진했기 때문에 삼보일배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광주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를 보호한다면 우리는 광주에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는 역사적으로 독재에 맞서 싸운 도시"라며 "오늘의 삼보일배는 1980년 5월의 정신을 잇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서구의회 윤리위 잇따른 파행...비난 목소리

26일 임시회 폐회...윤리위 제소 의원 징계 확정 못해 김옥수 의원 억지 주장 고수...동료의원·직원들 '절레'

광주 서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잇따라 파행되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 회부된 오광록, 김태진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끝내 결정되지 못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잇단 윤리위 회부 관련 절차상 문제 제기과 함께 회의 석상에서도 열도당도 않은 주장에 하며 자리를 이탈하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불행사나운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임시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26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제329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이날 오전 폐회됐다.

이번 서구의회의 임시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오광록, 김태진 의원 사건에 대한 확정이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옥수 의원의 계속된 절차상 문제 제기과 함께 회의의 진행이 지연되면서 윤리위가 연달아 파행,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28회 서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20조2를 내세우며 징계

요구서 회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칙은 의안 및 동의에 관한 것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본 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서구의회 사무국은 김 의원이 주장하는 규칙은 의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징계 관련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와 83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칙을 알린 것이다.

사무국의 충분한 설명에도 김 의원이 지난달 20일 열린 첫 윤리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동료의원은 윤리자문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윤리자문위도 회부된 징계 안건에 대한 적용 규칙이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2차 윤리위에서도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면서 파행됐다.

지난 25일에도 폐회를 앞두고 3차 윤리위가 열렸으나 김 의원이 참석과 동시에 "윤리위원의 권한을 모두 위원에게 위임하겠다. 본인은 빠질 테니 남은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라"며 자리를 벗어남에 따라 제대로 된 징계 논의 못한 채 윤리위는 10여분만에 끝났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김 의원의 행태에 회의 직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지쳐가고 있다.

이날 진행된 임시회 폐회에서도 김 의원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의회 관계자는 "김옥수 의원이 주장하는 윤리위 회부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주장하는 것에 윤리자문위의 의견도 받아 전달했음에도 '다수당의 횡포', '소수당의 의견은 무시한다' 등의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요청해 소집된 자리에서도 이탈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위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웃음치료 (외부강사)

간호사 케어

신속 고급 실내

음악 (외부강사 초빙)

물리치료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 (내남동)

“광천시민아파트, ‘들불 열사’ 추모 공간으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비조합 정비계획안 제출

광주 노동야학의 무대이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인 서구 광천시민아파트를 ‘들불야학’ 열사들을 추모하고, 광주 발전사를 보존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 광천동주택재개발비조합은 최근 광천시민아파트 나동에 대한 리모델링 방안과 층별 공간 배치 계획을 마련해 서구에 제출했다.

지난 2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관련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이뤄졌다. 조합은 계획안에 들불야학의 정신을 구현하는 시민아파트 △1980년대 광주시민의 삶이 깃든 시민아파트 △현재와 역사가

함께하는 시민아파트 △광주를 잇는 5·18역사가 담긴 시민아파트 등을 주제로 한 정비계획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1층은 현장 보존과 리모델링을 거쳐 ‘들불야학 7열사’를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고, 윤상원 열사의 집을 모형으로 재현한다.

2층에는 들불야학 교실을 재현하고, 5·18 당시 들불야학에서 만들었던 ‘투사 회보’ 전시공간과 함께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1층 한쪽에는 광천 산업단지과 시민아파트의 역사를 기록한 공간도 마련한다.

나동 주변에는 빛고를 광주를 밝힌 작은 불씨를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은 역사공원



서구 광천시민아파트.

조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역사공원은 잔디전시장, 기억의 연못, 메모리얼 거든 등 민주열사에 대한 추모와 배움의 공간과 소나무 언덕, 산책로 등 자연 속에서 치유 받는 힐링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서구는 점수한 정비사업 변경안을 다음 달 중 광주시에 입안해 최종 확정하고 광천시민아파트 4차협약체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